

공동체 소식



연중 제32주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11월은 '위령의 달'입니다.

안내 :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11/17(금):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다음 주일(19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 내용: 평신도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본당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합

- 일시: 11/19(주일), 교중미사 후.

11월 맨하탄 공소 미사

- 일시 : 11/18(토) 오전 11:30

11월 로렌스 공소 미사

- 일시 : 11/25(토) 오후 5:30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파 건
461	213	170	62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정예찬 미카엘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차 주	김명은 안젤라	강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차 주	김명희, 정연숙, 박동희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05	46명	506달러	1,070달러
홍순익, 이영민, 박태주, 김진미, 김호원, 박동희, 강영진, 한봉경, 박주연 (총 9세대)			

연중 제32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11월 12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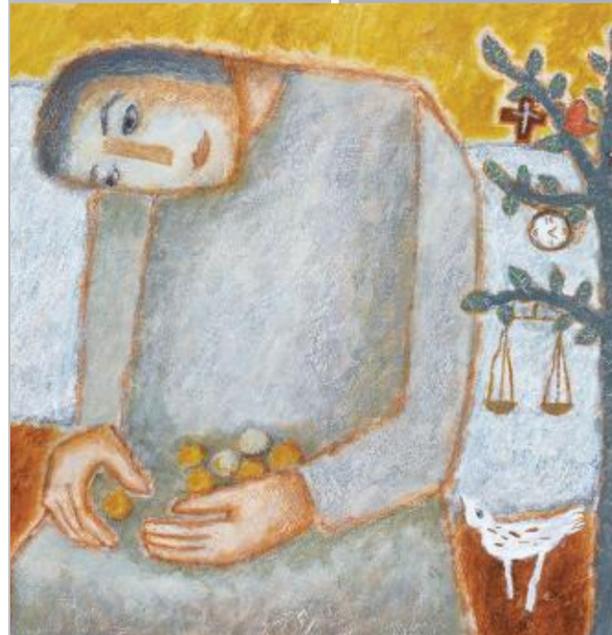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잔치상에 앉은 합당한 준비로,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서둘러 마중하여 혼인 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묵상 '충직한 중'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잘 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 25.14.19.23B)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 보물들을 떠올려 봅시다. 이 보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활용한다면, 주님의 종인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침내 주인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성실한 종은 주인과 함께 큰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6,12-16

<지혜를 찾는 이들은 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4,13-18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13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쉐 마

항상 깨어 주님 나라 준비하라



성경은 종종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신랑과 신부가 맺는 혼인계약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비유 말씀을 살펴보면 다소 이상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등장하지 않고, 신부 쪽 들러리인 열 처녀만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들은 열 처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돌보는 주님의 일꾼들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오늘 복음에서 봉독한 마태오 복음서 앞 뒤 문맥과 잘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마태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실한 종으로서 동료들을 잘 보살피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 처녀란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잘 봉사해야 할 봉사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가 깨어서 잘 기다려야 한다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공동체의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이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은 혼인 잔치에 초대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비유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열 처녀의 역할은 신랑이 올 때 그분을 잘 맞아들이도록 등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잘 챙겨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잠이 듭니다. 신랑은 한밤중에 오면서 늦어지기까지 하는데, 이는 오늘 복음 이전 대목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마태 24,43은 도둑이 밤에 오는데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마태 24,48도 “주인이 늦어지는구나”라고 말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불충실한 종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비유 말씀은 종말 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 늦어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가는 혼인 잔치, 곧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불충실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니 준비하였지만 충실히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가는 이들을 뜻합니다. 마지막 날 그들이 아무리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더라도 주인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을 것입니다.

불충실하고 어리석은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처녀들도 주인이 늦어지자 졸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던 시간, 곧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과 함께 기름도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등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등이란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도록 불림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이란 불림을 받은 이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오 복음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준비해야 할 기름입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복음은 불림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마태 7,21-23)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등과 그 등을 채울 기름을 잘 준비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날과 시간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리산책

연옥(煉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는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산 이들과 죽은 이들도 기억합니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 매 단마다 연옥의 영혼, 특히 가장 외로운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례 때나 기일에 연도를 바치고 위령성월에는 앞서가신 모든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희생하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다시 말해 하느님이나 주위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얼굴을 뵈기 위해서는 먼저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주님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루카 22,54-62 참조) 연옥의 느낌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연옥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가득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실 텐데, 우리는 자신의 악한행실이나 ‘단순히 사랑 없이’ 한 행동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과 뼈아픈 후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화의 고통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사랑 넘치는 주님의 시선을 천상의 순수한 기쁨 속에서 마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받은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

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사랑은 저 세상까지 이릅니다. 단식과 기도, 선행 그리고 무엇보다 미사를 통해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해 은총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공로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선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구원송).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캘리그래피 최연 세실리아 | 홍보국



복음묵상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 당신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 당신의 등불
- 당신의 마음
- 당신의 영혼
- 당신의 삶
- 당신의 꿈
- 희망의 불꽃
- 꺼지지 않게
- 당신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 그러니 깨어 있어라.
-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